일본, 태양·풍력 에너지비중 20%로

화석연료·원자력 의존도 획기적 감축 ... 에너지정책 근본적 재검토

일본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풍력 등 자연 에너지 사용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앞으로 에너지의 화석연료와 원자력 의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풍력과 태양 에너지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5월25일 발표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5월25일 파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포럼에 참석해 “일본은 현재 기본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대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원래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기려 하고 있으며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후쿠시마(Hukushima)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체르노빌식 위기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6>